

# 여진구 “괴물’, 배우로서 답준 작품…신하균과 호흡 특별”

JTBC 금토극 ‘괴물’ 종영 화상 인터뷰

진실 추적하며 신하균과 날선 긴장감

“화이’ 때와 달라…감정 연기 차별점”

“괴물’은 제가 제대로 연기를 잘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작품이에요. 소중한 작품이죠.”

배우 여진구가 JTBC 금토극 ‘괴물’에서 한층 짙어진 연기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배우 신하균과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며 긴장감을 높이는 동시에 진실을 향한 혼란과 고뇌를 섬세한 감정선으로 그려냈다.

‘괴물’ 종영을 맞아 12일 화상으로 만난 여진구는 “마지막 방송까지 시청자들이 어떻게 봐주시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겠다. 하지만 주변에서 몰입도 있는 작품이라고 말해주고, 많은 분이 호평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심리 추적 스릴러 ‘괴물’은 만양에서 펼쳐지는 괴물 같은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렸다. ‘괴물’은 누구인가, 너인가, 나인가, 우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20년 전 살인 사건을 추적,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다면성을 치밀하게 쫓는다.

여진구는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범인 찾기에만 몰려 있지 않고 남겨진 아픈 이들의 삶까지 그려내 와닿았다. 여러 인물의 삶을 보여준 작품”이라며 “‘괴물’은 저희 드라마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목이다. 특히 저는 회차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담은 부제를 토대로 작품을 바라보려고 애썼다”고 밝혔다.

**엘리트 형사 ‘한주원’ 역…“극 후반 전환점, 인물 변화에 중점”**

여진구는 극 중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만양 파출소로 내려온 엘리트 형사 ‘한주원’ 역으로 열연을 펼쳤다. 이방인으로 만양 사람들에게 대한 의심과 경계를 높이며 파트너 ‘이동식’(신하균)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아버지 ‘한기환’(최진호)에 대한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며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그는 “‘괴물’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가장 큰 변화를 맞는 사람은 주원이라고 생각했다. 만양에 내려와 이동식을 파헤치는 건 주원이었지만, 후반부에 그도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연기하며 인물 변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1~8회가 ‘괴물’의 1부, 8~16회가 2부 같은 느낌이지요. 주원이가 2부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변화를 맞이하지만, 초반의 캐릭터를 잃지 않으려 했어요. 자신이 만양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곁을 달아가죠. 또 주원이가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 등이 그의 삶에서 비롯했다는 점도 잘 전하고 싶었어요.”

깊이 있는 감정 연기로 영화 ‘화이’가 떠오른다는 평가도 나왔다. 여진구는 “‘괴물’을 준비하면서 ‘화이’를 신경 쓴 건 아니지만, 오랜만에 무거운 감정선을 가진 작품으로 인사드리는 만큼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분위기는 비슷할지 몰라도 캐릭터는 많이 달랐다. 감정 연기에 있어 차별점은 확실히 두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하균이 연기한 ‘이동식’과는 대조 대립하며 긴장감을 높였고, 극 후반부에는 파트너로 나아갔다. 여진구는 “이동식과 한주원의 긴장감은 현장에서 신하균 선배님과 서로 늘 상기하면서 찍었다”며 “두 사람이 서로 공조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초반의 팽팽함을 잃고 싶지 않았다”고 돌아봤다.

“신하균 선배님과 호흡은 특별했어요. 선배님 덕분에 더욱더 몰입할 수 있었고 칭찬받을 수 있었죠. 선배님과 이렇게까지 대립하는 인물 구조는 처음이어서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제 부족한 면을 채워주시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나중에 저도 선배님처럼 후배 배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맛있는 배우가 되고 싶죠.”

신하균과 함께한 ‘괴물’의 마지막 장면을 명 장면으로 꼽기도 했다. 여진구는 “정말 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가지만, 엔딩이 마음에 많이 남는다”며 “헤어질 때 서로를 바라보며 동식은 처음으로 주원에게 진심으로 환하게 웃어주고 주원은 동식이라는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는 그 모습이 정말 좋았다”고 회상했다.

**백상예술대상 후보 아쉬움 없어…“차기작, 멜로 노력하겠다”**

여진구는 ‘괴물’이 배우로서 또 한 번 확신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이라고 했다. “배우로서 제가 맞는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작품이에요. 많은 응원과 관심을 받아서 앞으로 연기함에 있어 어떻게 해야 칭찬받고 사랑받는지 조금의 답을 알려줬죠. 아직은 모자라지만, ‘괴물’을 토대로 앞으로 더 노력해야죠.”

또 백상예술대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아쉬움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백상예술대상 TV부문 후보에 ‘괴물’은 작품상과 남자 최우수연기상(신하균), 남자 조연상(최대훈), 여자 신인상(최정은) 등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이미 저는 많은 분께 칭찬을 받아서 후보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며 “다만 제작진, 배우들을 시상식에서 만나는 것도 재밌을 텐데, (코로나19로) 상황이 좋지 못해 함께 축하해줄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고 미소 지었다.

여진구는 ‘괴물’ 후반부 촬영으로 성동일·김희원과 함께했던 예능 ‘바퀴 달린 집’ 시즌2에는 합류하지 못하기도 했다. 그는 “스케줄이 겹쳐서 이번에 함께 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다”며 “선배님들이 어떻게 재미있게 여행을 다니는지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차기작은 미정이지만, 멜로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에는 부응하겠다고 웃음 지었다. 그는 “장르를 정해두고 차기작을 정하진 않지만, 멜로를 기대한다고 하니 수소문해서 한번 노력하겠다”고 크게 웃었다.

‘괴물’은 이규희 등 연극배우들의 열연으로 시선을 끌기도 했다. 여진구는 연극 무대에 대한 도전에 “아직 이르다”고 답했다. “사실 두려움이 크다. 제가 현장에서 NGA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정말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전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궁금하다. 좋은 기회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번 작품으로 인생 캐릭터를 보여줬다는 평가엔 겸손스러웠다. 그는 “앞으로 더욱더 새로운 인생 캐릭터, 인생 드라마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웃었다.

“어렸을 때부터 ‘여진구 아니면 누가 저 작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뇌리에 남는 연기를 하는 배우가 꿈이었어요. 매번 작품으로 인사드릴 수 있다는 게 원동력이면서도 부담이 되는 양날의 검이죠. 늘 잘 해내고 싶다는 욕심이 들고, 매 작품 많이 떨려요. 계속해서 새로운 역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저 스스로도 어떤 연기를 펼칠지 궁금해요.”

##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6천만 돌파…“세계 女 아티스트 처음”

데뷔 5년만에 거둔 기록…저스틴 비버와 200만명 차



그들 ‘블랙핑크’가 세계 여성 아티스트 중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6000만 명을 돌파했다.

13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이날 오전 6시경 6000만 명을 넘어섰다. 데뷔한지 5년 만에 거둔 기록이자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을 통틀어 최초·최고 수치다.

블랙핑크는 이미 작년 7월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를 뛰어넘어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 수를 확보한 여성 아티스트가 됐다. 이후 3개월 사이 에미넴, 애드 시런, DJ 마시멜로를 순차적으로 따돌리며 저스틴 비버(6200만여 명) 만큼 자신들의 앞자리에 남겨두고 있다.

당시 비버와 900만여 명이던 격차는 이제 불과 200만 명 차이로 줄었다. 특히 2009년 데

뷔해 약 11년 만에 6000만 고지를 밟은 그와 비교하면 블랙핑크의 유튜브 구독자 증가 추이는 압도적이다. YG는 “세계 아티스트 1위 등급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라고 전했다.

블랙핑크는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수백 만 명의 새로운 유튜브 구독자를 끌어 모았다. 지금까지 유튜브에 게재된 블랙핑크 콘텐츠의 총 누적 조회수는 170억 회 이상이다. 15억뷰를 돌파한 ‘뚜두뚜두(DDU-DU DDU-DU)’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27편의 역대급 영상이 이를 뒷받침했다.

YG는 “유튜브가 글로벌 음악 시장의 판도 변화를 이끌고 있는 주역임을 떠올리면 매우 의미 있는 지표”라면서 “유튜브 구독자 수는 콘텐츠에 대한 단순 호기심이나 일회성 시청이 아닌, 충성도 높은 팬들의 꾸준한 관심과 기대감을 나타내는 지표나 다름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뮤직비디오 조회수와 음원 스트리밍은 미국 빌보드 등 각종 글로벌 주요 차트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블랙핑크 멤버 개개인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제니에 이어 블랙핑크의 솔로 프로젝트 두 번째 주자로 나선 로제는 최근 세계 51개 지역 아이튠즈 톱 송은 물론 미국 빌보드 글로벌 1위에 올랐다. 리사도 곧 솔로 활동에 돌입한다.

## 트와이스 ‘예스 오어 예스’ 뮤비, 3억뷰 돌파

통산 9번째 기록

그들 ‘트와이스’의 ‘예스 오어 예스(YES or YES)’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3억 뷰를 돌파했다.

13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가 지난 2018년 11월 발매한 미니 6집 ‘예스 오어 예스’의 동명 타이틀곡 뮤비는 전날 오후 10시51분경 유튜브 조회 수 3억 건을 넘어섰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우아하게’, ‘치어 업’, ‘티티(TT)’, ‘라이키’, ‘왓 이즈 러브?’, ‘하트 셰이커’, ‘팬시’, ‘필 스페셜’에 이어 ‘예스 오어 예스’로 통산 아홉 번째 3억 뷰 돌파 뮤비 기록을 썼다.

‘예스 오어 예스’는 ‘고백에 담은 오직 ‘예스’ 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아 트와이스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극대화한 곡이다. 전통적인 신스팝에 모타운, 레게, 아레나 팝을 가미한 신나는 리듬이 특징이다.

앞서 트와이스는 지난달 ‘팬시’와 ‘우아하게’ 뮤직비디오를 3일 간격으로 4억 뷰 분열에 올



린 데 이어 JYP 대표 프로듀서 박진영이 작사와 작곡한 ‘필 스페셜’로 일본 오리콘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하는 등 국내외에서 연일 기록을 쏟아내고 있다.

##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외화 예매율 1위

오는 16일 개봉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이 외화 예매율 1위를 달성하며 흥행 청신호를 밝힌 가운데, 아카이 패밀리 모습을 담은 스페셜 포스터를 공개했다.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은 시속 1000km를 자랑하는 진공 초전도 리니어의 개통을 앞두고 공식 후원사 대표들이 연쇄 납치를 당하자, 명탐정 코난과 FBI 아카이 슈이치가 15년 전 사건의 그림자를 쫓으며 공조하는 질주 액션 미스터리다.

이번에 공개된 포스터는 아카이 패밀리의 사진이 조각나 있는 형태로 시선을 집중시킨

다. 아카이 패밀리의 장남 아카이 슈이치는 최고의 FBI 요원으로, 검은 조직의 눈을 피하고자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대학원생 오키야 스바루로 변장하며 정체를 숨기고 있다.

코난과 FBI 소수를 제외한 모두가 아카이 슈이치가 죽었다고 알고 있지만, 가족 중에서는 유일하게 차남 하네다 슈키치만이 그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프로 장기 기사로 활동하고 있는 하네다 슈키치는 세계 최고의 기억력을 지닌 인물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이번 사건에 어떻게 도움을 줄지 호기심을 자극한다.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은 오는 16일 자막과 더빙으로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 김제동 “이효리·유재석, 방송 초창기부터 잘해줘”

방송인 김제동이 가수 이효리, MC 유재석과의 우정을 자랑했다.

김제동은 13일 방송된 SBS 러브FM ‘이수영의 러브FM’ 코너 ‘초대해 봄’에 출연해 두 사람과의 친분을 전했다.

이효리, 유재석이 최근 출간된 자신의 책

추천사를 써준 것과 관련 김제동은 “저 방송 초창기에 핑분 분들이 정말 잘해줬다. 그때 방송을 안 할 때였는데 촌에서 올라와서 챙겨주고 싶었던 것 같다”라며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어 김제동은 “유재석 씨도 그랬다. 그때

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서 벌써 19년이 됐다. 유재석 씨랑은 정말 노래방을 같이 했었다. 맞으면서 정든 사이고 저희 집에도 엄청 왔다”고 전했다.

뉴스스